

붓다의 입멸 자세, 장소, 그리고 최후의 가르침

안 양 규*

- I. 서언
- II. 붓다의 입멸자세
- III. 붓다의 입멸장소
- IV. 붓다의 최후 가르침
- V. 결어

I. 서언

붓다의 입멸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가 부파불교 논사들에겐 주요한 논의의 중심이 되었다. 일견 이러한 문제는 논의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후대의 불교인들은 어떠한 의미가 있다라고 상정하고 그 의미를 나름대로 추구한 것이다. 붓다의 一舉手 一投足은 단순히 지나칠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본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견해를 살펴봄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지니고 있었던 佛陀觀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된 셈이다.

본고는 붓다의 최후 순간 중 쿠시나라(Kusināra)의 살라(Sāla) 쌍수 하에서 누운 시점에서 시작하여 최후의 가르침을 남기는 순간까지 일어난 일들 중 논사들에게 주요하게 논의되었던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살라 쌍수 밑에 누운 후 입멸 순간까지의 붓다의 행적을 전하는 『열반경』 제본이 한결같이 일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자 아난다(Ānanda)의 공덕에 대한 칭송, 붓다의 입멸 장소에 관한 문답, 붓다의 장례식에 관한 문답, 말라족(Mallas) 사람들의 붓다 친견, 최후의 제자의 귀의, 승단과 관련한 가르침, 입멸 직전의 최후 가르침 등이 그것이다. 순서에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이것들은 모든 『열반경』 제본에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붓다의 최후 행적 중에서 본고에선 붓다

* 동국대 불교학과 강사

의 입멸 자세 및 장소, 그리고 최후의 말씀을 중심으로 논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를 살핌으로써 그 당시 불교인들이 붓다에 관하여 어떠한 견해를 지니고 있었는지를 논구할 수 있다.

II. 붓다의 입멸자세

1. 『열반경』 제본의 묘사

『열반경』 제본에 의하면 붓다는 파바(Pava)에서 마지막 공양을 마친 후 히란야바티(Hiraññavati) 강을 건너 말라족의 살라 숲에 도착한다. 그는 아난다에게 자신을 위해 두 그루의 살라 나무 사이에 머리가 북쪽으로 가도록 침상을 펴라고 말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오른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누웠으며, 한 다리를 다른 다리 위에 올려놓는다. 이 자세가 열반상으로 불교의 예술 작품에 자주 등장하게 된다.¹⁾ 붓다가 왜 이러한 자세를 취했는가 하는 문제는 붓다 사후 제자들에게 주요하게 논의되었다. 이런 논의가 부파불교 시대의 논서에 정리되어 전해지고 있다.

먼저 논자들의 견해를 분석하기 전에 『열반경』 제본의 기술을 살펴보자. 팔리어 본 대반 『열반경』을 먼저 살펴보자. 쿠시나라의 살라(Sāla) 숲에 도착한 붓다는 아난다(Ānanda)에게 말했다. “아난다여! 너는 한 쌍의 살라나무 사이에 침대(maṇḍakam)의 머리를 북쪽으로 향하도록 준비하여라. 아난다여! 나는 지쳐있어 누워야겠다.”²⁾ 아난다는 붓다의 뜻대로 침대를 준비했다. 경전은 이어 붓다의 마지막 자세를 묘사하고 있다. “그때 세존은 우협으로 獅子臥(sīha-seyyam)를 하고 한 발을 다른 한 발에 포갠 채 正念하고(sato) 正智하고(sampajāno) 있었다.”³⁾ Sato와 sampajāno는 붓다의 누운 자세를 묘사하는데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Sato와 sampajāno는 팔리어 『열반경』 자체 내에서 여러 번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면 붓다가 노령이라는 이유로, 여행의 피로라는 이유로, 질병이라는 이유로 평상시와 달리 정신이 흐려있지 않았고 오히려

-
- 1) 열반상에 관한 연구는 다음의 서적을 참조하십시오. Ratan Parimoo, *Life of the Buddha in Indian Sculpture*. New Delhi: Kanak Publications. 1981. pp.30-43.
 - 2) DN ii, p.137, “Ingha me tvaṃ Ānanda antarena yamaka-sālānam uttara-sīsakam maṇḍakam paññāpehi, kilanto'smi Ānanda, nipajjissāmīti.”
 - 3) DN II, p.137, “Atha kho Bhagavā dakkhiṇena passanena siha-seyyam kappesi pāde pādāṃ accādhāya sato sampajāno.”

깨어 있음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安居 직후 붓다의 질병 극복을 묘사할 때, 수명을 방지할 때, 마지막 공양 직후 질병이 일어날 때, 이 두 용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⁴⁾ 자칫 이런 상황에선 깨어있기가 쉽지 아니한 것인데 경전은 붓다가 정념을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사자라는 이미지를 이용하여 강건함과 위엄을 붓다의 모습에 부가하고 있다. 80세라는 고령에 장기간의 도보 여행은 상당히 피로한 일임에 틀림없다. 병까지 걸려 있다면 발자국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이 고통일 것이다. 극도로 지치고 약한 이미지가 여행중인 붓다의 모습에 연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용맹스런 사자의 이미지가 의도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한역 『대반열반경』은 팔리어 『열반경』보다 조금 더 자세한 묘사가 주어지고 있다. “너는 娑羅林에 가서 한 곳에 홀로 있는 雙樹를 보거든 그 밑을 청소하여 淸淨하게 하라. 繩床을 안치하라. 머리를 北쪽으로 하라. 나는 지금 육신이 극도로 피로하고 고통스럽다. 그때 阿難과 모든 比丘들은 붓다의 말씀을 듣고 그 슬픔과 비통이 배로 증가하였다. 阿難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받들어 떠났다. 그 나무 밑에 이르러 청소를 하고 규정대로 자리를 폈다. 돌아와 청소와 자리 마련이 완료되었다고 아뢰었다. 그때 世尊과 모든 比丘들과 함께 娑羅林에 들어가 雙樹 아래 우협으로 자리에 누웠다. 마치 사자가 자는 것처럼 발을 포개어 누웠다. 마음을 단정히 하고 正念하였다.”⁵⁾ 팔리어 『열반경』과 마찬가지로 사자의 이미지와 정념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도 앞서 살펴본 두 개의 경전보다 더 자세하다. “너는 나를 위하여 雙樹 사이에 床을 안치하라. 나는 그곳에서 머리를 북쪽으로 향하여 누울 것이다. 今日 中夜에 반드시 입멸할 것이다. 이때 阿難陀는 말씀대로 행하고 나서 世尊께 가서 佛足에 頂禮하고 한곳에 서서 合掌하여 붓다의 말씀대로 안치하였음을 아뢰었다. 그때 如來는 곧 床에 가서 右脅으로 누웠다. 兩足을 서로 겹치고 光明을 생각했다. 繫意하고 正念하였다. 觀察하여 머물며 涅槃을 생각했다.”⁶⁾ 사

4) DN ii, p.98; p.109; p.127.

5) 『대반열반경』(『대정장』1, p.199上). “汝可往至娑羅林中。見有雙樹。孤在一處灑掃其下。使令淸淨。安處繩床。令頭北首。我今身體極苦疲極。爾時阿難及諸比丘。聞佛此語。倍增悲絕。阿難流淚奉教而去。至彼樹下灑掃敷施。皆悉如法。還歸自言。灑掃敷施。皆悉已畢。爾時世尊。與諸比丘。入娑羅林。至雙樹下。右脅著床。累足而臥。如師子眠。端心正念。”

6)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대정장』24, p.392中), “汝今爲我 於雙樹間安置床敷。我當於彼北首而臥。今日中夜必入涅槃。時阿難陀如教作已。詣世尊所。頂禮佛足。在一面立合掌白言。如佛所教並已安置。是時如來卽往就床。右脅而臥。兩足相重。作光明想。繫意正念。觀察而住。爲涅槃想。”

자의 이미지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의식적으로 광명과 열반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유행경』은 머리를 북쪽으로 하여 누운 점을 강조하고 있다. “너는 如來를 위해 雙樹 사이에 床座를 마련하라. 머리 부분을 북쪽으로 하고 얼굴은 西方으로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法이 流布되어 오래 동안 北方에 머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하고 자리를 펴서 머리를 북쪽으로 향하도록 하였다. 그때 世尊은 스스로 僧伽梨를 네 번 접어서 師子王처럼 우협으로 발을 포개어서 누웠다.”⁷⁾ 앞서 살펴본 팔리어 『열반경』이나 『대반열반경』,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에 비해 정념에 해당하는 부분이 빠져 있다.

『般泥洹經』에선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그때 붓다는 현자 阿難에게 말했다. ‘너는 蘇連의 雙樹 사이에 繩床을 北쪽으로 두라. 나는 夜半에 滅度하리라.’ (아난이) 가르침을 받고 행하고 나서 돌아와 이미 준비되었다고 아뢰었다. 붓다는 雙樹에 이르러 繩床에 나아가 右脅으로 누웠다.”⁸⁾ 이 경전에선 앞서 살펴본 사자의 비유나 깨어 있음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다.

『佛般泥洹經』은 이렇게 전하고 있다. “붓다는 阿難에게 말했다. ‘빨리 가서 붓다를 위해 鹽呵沙에 침상의 머리를 북쪽으로 마련하라. 오늘 夜半에 佛은 반열반할 것이다.’ 阿難은 명령을 받들고 그곳으로 가서 침상의 머리를 북쪽으로 마련하고 나서 돌아와 침상이 준비되었다고 아뢰었다. 佛은 자리에서 일어나 鹽呵沙에 가서 침상 위에 右脅으로 누웠다.”⁹⁾ 이 경전도 『般泥洹經』에서와 마찬가지로 獅子臥나 정념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

『열반경』 제본은 한결같이 붓다가 머리를 북쪽으로 향하게 하고 우협으로 누웠다는 점에 대해선 일치한다. 대체로 두 가지 점에서 우리의 주목을 끈다. 첫째, 붓다가 의도적으로 머리를 북쪽으로 두었다는 것이다. 왜 붓다가 이런 자세를 취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유행경』을 제외한 다른 제본들은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둘째, 붓다의 누운 자세를 사자의 누운 모습과 비교하는 부분이다. 팔리

7) 『유행경』(『대정장』1, p.21上), “汝爲如來於雙樹間敷置床座。使頭北首。面向西方。所以然者。吾法流布。當久住北方。對曰。唯然。卽敷座。令北首。爾時。世尊自四牒僧伽梨。偃右脅如師子王。累足而臥”。

8) 『般泥洹經』(『대정장』1, p.184下), “彼時佛勸賢者阿難。汝於蘇連雙樹間。施繩床令北首。我夜半當滅度。受教卽施。還白已具。佛到雙樹。就繩床側右脅而臥”。

9) 『불반니원경』(『대정장』2, p.169上), “佛告阿難疾去爲佛於鹽呵沙。施床使北首。今日夜半。佛當般泥洹。阿難奉命。之彼施床頭北首畢。還白言。施床已竟。佛起至鹽呵沙。得床倚右脅臥”。

어 『열반경』, 『대반열반경』, 『유행경』은 사자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 세 경전들은 붓다의 강건함과 깨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논사들도 이상의 두 가지 문체에 집중되고 있다.

2. 논사들의 해석

(1) 머리를 북쪽으로 둔 이유

『阿毘達磨大毘婆沙論』에선 7가지 설명이 제시되고 있다.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⁰⁾

① 拘尸城의 논사는 머리를 북쪽으로 하여 눕는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이다. 즉 그 나라의 논사들이 그런 식으로 눕기 때문에 붓다도 그 법을 따랐다고 보는 것이다.

② 붓다는 모든 논사를 조복시킨 無上 제일의 논사이므로 그렇게 누운 것이다. 이 부분의 설명은 명확하지 못한 면이 있다. ①과 관련하여 이해하여 보면 아마도 스승들이 자신의 죽음에 임박해 머리를 북쪽으로 두는 것이 전통적인 관습이었던 것 같다. 붓다는 최상의 스승이기 때문에 당연히 북쪽으로 머리를 두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듯 하다.

③ 세상 사람들의 허망한 믿음에서 붓다는 벗어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이다. 구시 나라 사람들은 死者의 머리를 북쪽으로 두어야 길상하다라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붓다는 아직 입멸하기 전인데도 일부러 북쪽으로 누웠다는 것이다. 아마도 그 나라 사람들의 믿음에 의하면 북쪽은 죽은 자를 위한 방향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붓다는 살아 있으면서 북쪽으로 머리를 둠으로서 민간의 俗信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보인 것이더라는 설명이다.

④ 구시국 사람들의 不淨心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이다. 그 나라의 풍속에는 北方에 신을 위한 사당(天祠)을 건립했는데 만일 붓다가 발을 북쪽에 두고 누우면 그 나라 사람들이 자신들을 업신여긴다고 부정한 생각을 일으킬 수 있다. 괜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그런 자세를 취했다는 것이다.

⑤ 붓다는 정법을 공경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붓다의 입멸 후 法의 햇불이 북방에서 훗훗 타오를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머리를 북쪽으로 향하게 했다는 것이다. 정법에 대한 존경심으로 정법이 펼쳐질 곳의 방향으로 머리를 두었다

10) 『阿毘達磨大毘婆沙論』(『대정장』27, p.956下).

는 것이다.¹¹⁾

⑥ 이전에 붓다가 해놓은 모든 일들이 점점 융성해지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다. 붓다는 3無數劫 동안 많은 善根을 쌓았는데 그 善根이 점점 융성하여 시들어지는 일이 없다. 융성한 善根이 최고로 뛰어난 방향인 북방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붓다는 머리를 그 쪽으로 두고 누웠다.

⑦ 입멸 후 북쪽의 사람들이 점차로 더욱더 광대해지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다. 물론 이런 경제적인 이유 이면에는 불교의 포교라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⑦은 ⑤와 ⑥과 함께 읽어야지 따로 읽어서는 제대로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다.

①②③④는 구시나라의 관습과 결부되어 있는데 비해 ⑤⑥⑦은 붓다 사후 불교의 융성지를 예상하고 있다. 구시국 사람들 사이에선 북방이 전통적으로 좋은 방향이라고 믿어지고 있는데,¹²⁾ 불교도들은 그러한 믿음을 수용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한다. ①②④는 북방이라는 전통적인 방위에 대한 구시국 사람들의 신앙을 붓다가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③은 그러한 전통적인 민간의 믿음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¹³⁾

일반적으로 인도인들은 屍身을 지극히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 죽음의 신이 살고 있는 남방으로 시신을 두는 것이 힌두교의 관습이다. 그러나 붓다가 북쪽으로 향하여 누웠다는 것은 이러한 힌두교의 신앙과 관습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¹⁴⁾ 이런 맥락에서 ③의 설명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전통적인 관습의 타파라는 해

11) 초기불교의 문헌은 대체로 붓다라는 한 개인보다도 법을 상위 개념으로 두고 있다. 붓다가 정각 직후 세상의 어느 스승으로부터도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음을 알고 누구를 존경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그때 그는 正法이야말로 자신이 존중하고 받들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존중경』). 정법에 대한 이런 존경은 붓다의 일생 동안 계속 지켜지다가 마지막 순간에도 정법의 의향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12) 전통적으로 힌두교도들은 남방이 죽음의 신이 다스리는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신의 머리를 남쪽으로 향하게 한다(Gombrich, *Theravada Buddhism — A Social History from Ancient Benares to Modern Colombo*. London: Routledge. 1991, p.123), 이런 점에서 구시국 사람들은 힌두교의 관습과 반대되는 신앙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붓다 당시에 이미 인도인들은 方位에 관한 신앙이 있었다. 『선생경』(『대정장』1, p.70上)에 방위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다.

13) 한편 ③의 경우도 ①②④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관습을 따랐다고 볼 수 있다. 생시에 잠을 잘 때 머리를 북방으로 하지 않고 시신을 북방으로 두는 구시국의 관습을 염두에 두고 논자들은 붓다가 일부러 생시에도 머리를 북쪽으로 두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곧 붓다가 죽게 될 것이므로 生과 死의 시간적인 간격은 무시할 정도로 적다. 오히려 붓다가 자신의 죽음에 임박해 구시국의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 북쪽으로 누운 것이라고 바라볼 수 있다.

14) Gombrich, 앞의 책, p.123.

석은 다른 점에서도 보인다. 전통적으로 힌두교들은 집에서 임종하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중에 임종하는 것이 최상이라고 믿기 때문에 가능하면 집에서 임종하도록 조치한다. 임종이 임박하면 임종을 맞이한 사람을 집 입구나 그 사람이 평소 사용하던 방에 머리를 동쪽으로 향하게 하여 눕힌다. 사후 시신의 머리를 남쪽으로 향하게 한다.¹⁵⁾ 그런데 붓다가 숲에서 입멸하려는 것이니¹⁶⁾ 서쪽으로 얼굴을 향하도록 하고 머리를 북쪽으로 두는 것 모두가 전통적인 힌두교의 관습과 반대된다. 붓다가 임종을 맞이하여 관습에 구속되어있는 사람들에게 입멸 자세로 마지막 가르침을 펴고 있는 것이라라고 해석할 수 있다.

(2) 우협으로 누운 이유

설일체유부의 논서에는 두 가지 설명이 제시되고 있다. ① 붓다는 獅子王처럼 누운 것을 나타내려 함이다. ② 이전에 제자들에게 우협으로 누울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붓다도 우협으로 누운 것이다. ②부터 먼저 살펴보면 중생의 눕는 자세에 네 종류가 있다: 사자왕처럼 눕는 것, 신처럼 눕는 것, 귀신처럼 눕는 것, 탐욕스런 사람이 눕는 것.¹⁷⁾ 사자왕은 우협으로 눕고 신은 얼굴을 위로 향해 눕고, 귀신은 엎드려 눕고, 탐욕 있는 사람은 왼쪽 겨드랑이를 대고 눕는다. 우협으로 눕는 것은 좌협으로 눕는 것과 상대되고 있다. 좌협으로 눕는 사람은 탐욕심을 위시한 번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반대로 우협으로 눕는 사람은 모든 번뇌에서 자유롭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붓다가 제자들로 하여금 우협으로 누우라고 가르친 것은 번뇌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보인다.

붓다는 종종 사자의 왕으로 비유된다. 모든 동물 중에서 사자가 가장 용맹하여 동물의 왕이 되듯이 붓다도 사람들 중에서 그러하다는 것이다. 붓다의 설법을 獅子吼라고 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이다. 동남아시아 上座部의 대표적인 논사인 붓다고사는 자세하게 사자의 누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동물의 왕인 사자는 자궁

15) http://www.matiyapatidar.com/death_and_dying.htm

16) 붓다가 원하기만 했더라면 사원이나 유력한 신도의 집에서 입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실 한 한역본(『불반니원경』, 『대정장』1, p.171中)은 왕이 붓다가 성내에 들어와 입멸할 것을 간청하고 있다.

17) 붓다고사(DA ii, p.574)는 신과 귀신을 함께 묶어 같은 범주인 귀신(peta)로 여기고 있으며, 如來의 눕는 자세를 별도로 부가하고 있다(참고 AN ii, p.244f), peta(귀신)는 피와 살이 없기 때문에 등을 대고 누워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신도 귀신과 마찬가지로 피와 살이 없으므로 등을 대고 누워야하는 것이다.

심이 대단하므로 자신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설령 자고 있는 동안이라도 흐트러짐 없이 위엄을 지키고 있다. 앞발 두개를 포개어 한 곳에 두고 뒷발 두개를 포개어 다른 곳에 둔다. 꼬리를 뒷발 두개 사이에 놓고 머리는 앞발 앞에 둔 채 잠을 잔다. 잠에서 깨어날 때 두려움 없이 일어나 자신의 자세를 관찰한다. 만약 사지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져 있으면 불만족해하며 계속 누워 사냥하려 가지 않는다. 이런 방만한 자세는 맹수의 왕인 자신에겐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긴다. 따라서 사지는 항상(자고 있을 때조차도) 방심하거나 방만한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붓다도 마찬가지로 항상 방심하지 않고 자신의 자세를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경전의 편집자나 논사의 주장이다. 붓다는 마지막 순간에 즈음하여 심신이 극도로 피로해져 있었지만 방심하지 않고 위엄있는 자세를 취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붓다고사는 외견상 붓다의 누운 모습이 사자의 누운 모습과 유사하지만 내적으로 말하면 붓다는 그 당시 제4선(jhāna)에 입정한 것으로 이것이 여래의 누운 자세라는 것이다.¹⁸⁾ 이 제4선을 전통적으로 사자의 누운 자세로 불리는 것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여튼 이 제4선에서 가장 큰 에너지가 생긴다고 한다.¹⁹⁾ 팔리어 『열반경』엔 붓다의 입멸자세가 아주 간략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비해 붓다고사는 아주 장황하게 붓다의 마지막 자세에 대해서 주석하고 있다. 이런 그의 자세한 주석은 붓다가 취한 자세가 힘없는 노인이 누운 모습으로 비치 것을 염려한 결과로 보인다.

『열반경』 제본은 붓다의 누운 자세에 대하여 매우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지만 붓다고사나 유부의 논사들은 이 누운 자세가 피로에 지쳐 기진맥진한 자세가 아니라 사자처럼 위엄 있는 자세라고 강조하면서 장황하게 주석하고 있다. 나이 많은 노인이 자신을 지탱할 힘이 없어 드러누워 사방을 분간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맹수의 왕처럼 힘이 있으며 깨어 있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분간하고 있다는 것이다.

18) 제4선은 초기불교의 명상 수행 체계에서 가장 중요시되고 있다. 전통에 의하면 제4선을 통하여 35세에 정각을 이루고 80세에 입멸했다고 한다. 붓다가 왜 제4선에서 입멸했는가하는 문제는 후기의 논사들에게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자세히 논의되었다. 이 논의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본인의 논문 참조 “붓다의 입멸과정과 그 해석: 說一切有部를 중심으로”, 『인도철학』, 2001, 제11집 제1호, pp.197-199.

19) DA ii, p.575.

(3) 앉지 않고 누워서 입멸한 이유

한 한역본을 제외한 『열반경』 제본은 붓다가 누운 채 입멸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²⁰⁾ 설일체유부의 논서에는 다섯 가지 이유가 제시되고 있다.²¹⁾

① 대중들로 하여금 붓다의 全身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② 붓다가 누워서 입멸하면 신체의 度量이 나타나므로 분명히 알 수 있어 따로 억측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③ 붓다는 속임수를 여의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다. 만약 붓다가 앉아서 입멸하면 외도들은 어떻게 앉아서 입멸할 수 있는가하고 의심하며 이것은 속임수라고 말할 것이므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누워 입멸했다는 것이다.

④ 미래의 성자를 위해서이다. 미래의 아라한 중 몸이 허약하여 누워서 입멸하는 경우가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붓다는 앉아서 입멸했는데 이 사람은 누워서 입멸하니 성자가 아니다라고 비방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비방을 막기 위해 붓다는 누워서 입멸했다.

⑤ 자신의 힘을 믿는 이의 교만을 끊게 하기 위함이다. 那羅延의 힘을 갖춘 붓다도 無常의 법칙에 의해 꺾박받아 누워 입멸하는데 하물며 우리 범부들이 조그마한 힘을 믿고 교만을 내겠는가? 하고 반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나라연은 불법의 수호신으로 그 힘은 보통 소의 힘보다 10²⁴배에 해당한다고 한다.²²⁾

붓다고사도 다섯 번째의 설명과 같은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붓다고사의 계산법에 따르면 붓다의 힘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보통 코끼리가 소유한 힘의 10,000,000,000배에 해당하는 힘이 붓다의 힘이다. 보통 코끼리의 힘은 보통 사람의 힘의 10배이다. 따라서 붓다는 보통 장정이 가진 힘의 10 X 10,000,000,000배를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막대한 힘을 소유하고 있었던 붓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기력이 쇠진하게 되어 늙게 되었다는 것이다.²³⁾ 하여튼 북방의 유부나 남방의 상좌부는 평소 붓다의 힘은 보통 인간의 힘을 초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힘을 가진 붓다의 육신도 이렇게 마지막 순간 무상법의 회생이 되므로 자신의 힘만을 자만하는 자는 교만심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①과 ②는 같이 이해될 수 있다. 제자들이 직접 붓다의 시신을 목격함으로써

20) 『불반니원경』(『대정장』1, p.172下)에 의하면 붓다는 正坐한 채 입멸하였다.
21) 『阿毘達磨大毘婆沙論』(『대정장』27, p.957下).
22) 『아비달마대비파사론』(『대정장』27, p.155上), 나라연이란 원래 힌두교의 한 신이었지만 불교에서 수용되어 강력한 힘을 가진 보호신이 되었다.
23) DA ii, p.573.

불필요한 억측이나 상상을 하지 못하게 한다. ①과 ②가 제자들의 미혹을 방지한 것이라면 ③은 외도들의 미혹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든 설명이다. 이런 종류의 의혹이 일어나는 것은 성인은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믿음에서 기인한다. 보통 사람들은 성인의 외형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성인의 몸 동작이나 행위가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고 본다. 죽을 때도 성인은 보통사람과 다른 자세를 취하여 죽는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이런 믿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좌하지 않고 누워서 입멸했다는 것이다. ④와 ⑤는 사실상 붓다가 정좌하지 않고 누워서 입멸한 이유가 기력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Ⅲ. 붓다의 입멸장소

1. 『열반경』 제본의 설명

『열반경』 제본에 의하면 붓다는 구시나라에서 입멸하였다. 쿠시나라는 붓다 당시에도 매우 조그마한 마을이었던 것 같다. 붓다가 이곳에서 입멸하려고 하자 시자 아난다가 큰 도시에서 입멸할 것을 붓다에게 간청하는 장면이 있다. “존자여! 세존께서는 이 작은 마을(kuḍḍa-nagarake), 숲속의 마을(ujjaṅgala-nagarake), 장작더미의 마을(sākha-nagarake)에서 반열반하지 마십시오. 존자여! 왜냐하면 다른 거대한 도시(mahā-nagarāni)들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캄파(Campā), 라자가하(Rājagaha), 사밧티(Sāvatti), 사케타(Sāketa), 코삼비(Kosambi), 바라나시(Bārāṇasi)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세존께서 변열반하소서. 그곳에는 부유한 왕족(Khattiya-mahāsāla), 부유한 사제(Brahmana-mahāsāla), 부유한 장자(gahapati-mahāsāla)들이 여래에 대한 믿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래의 시신을 공양할 것입니다.”²⁴⁾ 한역 제본도 거의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

『대반열반경』은 쿠시나라가 변방이고 협소하다(邊狹)라고 묘사하고 있다.²⁵⁾ 『반니원경』은 좁고 누추한 조그마한 성(徧陋小城)으로 묘사하고 있고,²⁶⁾ 『불반니원경』은 쿠시나라는 小縣이며 더구나 지금 붓다가 누워 있는 곳은 성 바깥으로 취락도 적고 누추한 곳(薄聚鄙縣)으로 묘사하고 있다.²⁷⁾ 『유행경』은 좁고 누추한 조

24) DN ii, p.146.

25) 『대반열반경』(『대정장』1, p.200下).

26) 『반니원경』(『대정장』1, p.169下).

그마한 성(彌陁小城)이며 잡초가 무성하고 이지러진 땅(荒毀之土)으로 묘사하고 있다.²⁸⁾ 근본설일체유부는 荒野와 자갈(燒礫)땅, 변방의 비루한 땅(邊隅卑陋)으로 묘사하고 있다.²⁹⁾

아난다의 간청 이유는 평범한 사람들의 의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 위대하신 스승이 외지고 조그마한 장소에서 죽는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죽은 후에도 이런 누추한 곳에선 추도나 장례도 초라하게 치러지거나 제대로 행하여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염려이다. 위대한 성인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의 추도를 받고 성대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이다. 세속적인 관습에 순응하려는 아난다의 간청을 붓다가 거절하고 있다. 그러나 그 거절 이유를 살펴보면 일반인의 상식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따르고 있다. 즉 과거 전생에 이 땅은 풍요롭고 아름다운 거대한 수도였다는 것이다. 지난 과거세에 여러 번 이곳에서 전륜성왕으로 죽었지만 이번 생애에는 마지막으로 붓다로서 입멸하여 다시 태어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아난다의 간청 및 그 이유에 대해 붓다의 답변은 신화적인 요소가 내재해 있어 일반인에게 설득력이 없는 것처럼 들린다. 어쨌든 이러한 아난다의 간청이나 붓다의 답변은 『열반경』이 형성될 때 벌써 입멸장소를 둘러싼 문제가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수의 학자들은 붓다가 자신의 고국 카필라바수트를 가는 도중 쿠시나라에서 입멸했다고 해석하고 있다.³⁰⁾ 이런 견해에 의하면 붓다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 객사한 것이다. 한편 이런 객사설에 대항하여 붓다는 의도적으로 쿠시나라를 선택했다는 견해도 있다. 라자가하나 바이살리 같은 대도시 보다 조그마한 마을을 선택한 것은 붓다의 품성이 겸손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³¹⁾ 즉 평소 검소함과 고요를 붓다는 즐겼기 때문에 번잡한 대도시에서 입멸하는 것을 피했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견해는 정치 사회적인 추론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자신의 출생 왕국인 석가국이 코살라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붓다가 그곳에서 열반에 드는 것은 적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비록 말라죽은 자기의 직계 친척은 아닐지라도,

27) 『불반니원경』(『대정장』1, p.169下). 쿠시나라의 왕은 태자와 신하를 보내 붓다가 성안으로 들어와 입멸할 것을 간청하고 있다(p.171中).

28) 『유행경』(『대정장』1, p.21下).

29)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대정장』24, p.392).

30) 대표적으로 中村元을 들 수 있다. 『ゴータマ・ブツダ』Ⅱ, 東京: 春秋社 1995, p.6.

31) Nārada, *The Buddha and His Teachings*. Saigon, 1964, p.129.

붓다와 같은 몽골계 인종이었으며 자신의 친척과 같았다는 이유에서 차선책으로 붓다는 말라족의 쿠시나라를 자신의 입멸장소로 결정하였다는 것이다.³²⁾

객사설에 비해 이상의 두 설명은 붓다가 객사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에 의해 선택되었다고 보는 관점에 있어 부파불교 시대의 논사와 같은 불타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 붓다고사의 견해

붓다고사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붓다가 이 곳에 반드시 입멸할 것을 결심했다고 한다. 붓다고사에 의하면 파바에서 마지막 공양을 한 이후 극도로 지쳐있었으므로 파바에서 쿠시나라까지 거리 8내지 12마일 오는 동안 25번 다른 곳에서 앉아 쉬었다. 온갖 힘을 다해 해질 녘에 살라 숲에 겨우 도착할 수 있었다.³³⁾ 붓다고사는 붓다가 이렇게 힘들게 쿠시나라에 온 경위를 먼저 밝히고 그 이유를 3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대선견왕경』(Mahāsudassana-sutta)을 가르치기 위해 서라는 것이다. 만약 쿠시나라가 아닌 다른 곳에서 입멸한다면 이 경전을 설할 필요성이 없게 되기 때문에 이 곳 쿠시나라에 입멸했다는 것이다. 『열반경』에 의하면 붓다가 입멸할 즈음 그의 시자 아난다가 붓다에게 이 작고 누추한 쿠시나라 마을이 아닌 다른 마을에서 입멸할 것을 권청한다. 그때 붓다는 이 곳은 전생에 위대한 제국의 수도였으며 자신은 이 나라의 전륜성왕으로 통치하다가 이 수도에서 죽었다고 말하며 쿠시나라의 옛 영광을 간략히 말하고 있다. 『열반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짙막한 붓다와 아난다의 대화는 팔리어 경장에서는 Mahāsudassana-sutta라는 별개의 경전으로 독립하여 나오고 있다.³⁴⁾ 이 경전을 설하기 위해서 쿠시나라에 일부러 왔다는 것이다, 즉 아난다로 하여금 이 마을에 관해 질문을 유도하게 하여 이 경전을 설하여 많은 사람이 모두 선을 행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Subhadda를 교화하기 위해 이 곳에 왔다. 이 외도는 붓다에 의해서만 교화될 수 있으므로 그가 머물고 있는 쿠시나라에 왔다. 『열반경』에 의하면 그는 붓다의 최후의 제자가 된다. 붓다가 입멸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붓다에게 찾아와 진리

32) Chamnong Tongprasert, "My Political Thought on the life of the Buddha" Overseas Going Buddhist Missionary Monks Class V(Bangkok: Dhammaduta Bhikkhus Going Abroad, 2000), 『불교평론』 제7호, 2001년 여름호에 번역문이 실려있음.

33) DA ii, p.573.

34) 반면에 신스크리트본이나 한역 제본에서는 『열반경』의 일부로 존재하고 있다.

에 관해 질문하고 답을 듣고 나서 출가하게 된다.³⁵⁾ 특별히 왜 그를 마지막으로 교화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생에 두 형제가 함께 농사를 지었는데 형은 매우 관대하여 수행자에게 공양을 민첩하게 했지만 동생은 언제나 늦었다. 이런 과보로 현생에 형은 붓다의 첫째자인 아나타 콘다냐(Aññāta-Koṇḍañña)가 되었고 동생은 수밧다(Subhadda)가 되어 붓다의 최후 제자가 된다.³⁶⁾

셋째, 사리를 둘러싼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쿠시나라에는 도나(Doṇa)라는 브라흐민이 있어 사리 소유로 인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즉 다른 곳에서 입멸하면 화장 후 사리를 서로 소유하려다가 싸움이 일어나 많은 살상이 일어날 수 있지만 쿠시나라에는 현명한 도나가 있어 분쟁을 잘 해결하여 사리를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다고 붓다가 예견했다는 것이다. 『열반경』에 의하면 쿠시나라국 사람들이 붓다의 사리를 독점하려고 하자 이웃 7국의 병사가 도착하여 그들도 마찬가지로 사리를 독점하려고 하는 전쟁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때 도나가 나타나 전쟁으로 치닫는 싸움을 평화롭게 해결한다.³⁷⁾

붓다고사는 이상의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붓다가 기력의 소진에도 불구하고 굳이 쿠시나라에 입멸하기 위해 왔다는 것이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붓다는 이상의 세 가지를 미리 예견하여온 것으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다. 붓다고사의 설명은 다분히 『열반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라는 비판을 견디어내기 어렵다. 단순히 우연히 발생한 일련의 사건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에 붓다고사는 강력히 반발하겠지만 우연으로 보는 시각을 무시하기 어렵다. 단순히 돌발적인 사건으로 우연으로 볼 것인지 붓다고사의 주장대로 붓다의 미래를 예지하는 숲지에 의한 것인지 하는 문제는 佛陀觀의 문제이다. 붓다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이상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해결을 기대한다. 여하튼 붓다고사는 붓다의 숲지한 능력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3. 유부 논사의 견해

『阿毘達磨大毘婆沙論』에선 8가지 이유가 제시되고 있다.³⁸⁾ 하나씩 살펴보자.

① 모든 力士를 제도하기 위하여.

35) 『열반경』 제본에 이 두 사람의 대화가 나오고 있으며, Mil. p.130에도 이 대화가 논의되고 있다.

36) DA ii, p.588.

37) DN ii, p.165f.

38) 『阿毘達磨大毘婆沙論』(『대정장』27, p.956中).

② 外道인 蘇跋陀羅(Subhadda)를 교화하기 위하여.

③ 補羯娑(Pukkusa)로 하여금 獨覺의 菩提 종자를 심게 하기 위하여. 補羯娑는 末羅 사람으로 阿羅羅迦羅摩(Ālāra Kālāma)의 제자였다. 붓다가 파바로부터 쿠시나라로 오는 도중에 그는 붓다를 만나 자신의 스승의 불가사의한 선정을 자랑한다. 이에 붓다는 자신의 선정이 더 훌륭하다고 보갈사를 설득한다. 이에 보갈사는 붓다에게 귀의한다.³⁹⁾ 보갈사의 귀의는 붓다의 지위를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성도 전 붓다는 阿羅羅迦羅摩를 한 때 스승으로 삼았다. 불행하게도 이 스승은 붓다가 성도할 때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었으므로 붓다는 그로부터 자신이 더 훌륭하다는 것을 확인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만약 그가 살아있었다더라면 그는 붓다의 제자가 되었거나 붓다가 자신 보다 훌륭하다는 것을 인정했을 것이다. 아니면 적어도 붓다가 한 때 그의 제자였었다는 기억을 회식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의 제자를 대신 끌어들여 붓다에게 귀의시킴으로써 붓다의 위대성을 재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④ 補羯娑의 아내로 하여금 無上正等菩提의 종자를 심게 하기 위하여.

⑤ 구시성의 역사들이 경멸당하는 것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구시성의 사람들은 다른 도시의 사람들로 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었으므로 붓다가 다른 곳에 입멸하면 이 마을 사람들은 붓다의 사리를 얻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이곳에 입멸했다는 것이다. 구시성은 천민들이 거주했거나 생활 수준이 매우 낮아 큰 도시의 사람들로 부터 무시당하고 있었던 것 같다. 따라서 붓다의 가르침의 혜택을 제대로 받을 기회가 적었던 것이다. 그것을 염려하여 붓다가 이곳에 입멸함으로써 구시성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입지를 높일 수 있고 붓다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⑥ 붓다의 사리를 널리 유포시키기 위해서. 구시성 사람들은 심신이 용감하고 건전하며 나누기를 좋아한다는 것이다. 용감하고 굳세므로 다른 사람들로 부터 비굴하게 굴복되어 붓다의 사리를 강탈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함께 나누어 가지는 것을 좋아하므로 주체적으로 널리 사리를 분배할 것이라는 것이다. 자신만이 붓다의 사리를 간직하려다가 다른 도시의 사람들과 싸우는 일이 구시성 사람에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⑦ 붓다의 입멸시 붓다가 받는 공양은 轉輪聖王보다 몇천 배 더 받는데 큰 도시에서 입멸할 경우 받는 공양은 轉輪聖王보다 능가하더라도 奇特한 것이 안되는

39) DN ii, p.130ff.

것에 비해 작은 마을에서 받는 공양은 도시에서 받는 공양보다 같더라도 더 기특하다는 것이다. 부유한 도시에서의 호화로운 장례는 비밀비재하여 특이한 것이 되지 않지만 작은 마을에서 행해지는 같은 호화로운 장례는 눈에 띈다는 것이다.

⑧ 전생에 붓다가 여기에서 신명을 버렸기 때문에 이번 생애에도 이곳에서 입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열반경』 제본에 나오는 것과 같다.

①과 ⑤는 쿠시나라의 사람들을 위하여 이곳을 입멸 장소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②③④는 특정한 개인을 위하여 붓다가 이곳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⑥은 붓다의 사리 분배를 위해, ⑦은 붓다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⑧은 이상의 설명들이 만족스럽지 못하므로 『열반경』의 의견을 따르고 있는 듯하다. 어느 것이 정답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 가지 답안이 제시되었다는 것은 붓다의 입멸 장소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 8개의 설명 중 선현과 쿠시나라 사람들을 위해 쿠시나라를 입멸장소로 선택했다고 보는 견해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질병으로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붓다가 선현과 쿠시나라 사람들에게 법을 설한 필연성에 대해 자세히 밝히고 있는 문헌이 있다. 이 문헌은 설일체유부에 의해 전승된 것으로 유부의 논사의 설명도 이 문헌에 근거한 것으로 추정된다. 붓다와 선현, 그리고 쿠시나라 사람들의 인연은 전생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생에 한 마리 사슴 왕과 천 마리의 사슴이 숲에 살고 있었다. 사냥꾼이 온다는 전갈을 받은 사슴 왕은 자신의 안위보다 다른 사슴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다. 사슴 왕은 미약한 사슴들을 위하여 川에 들어가 자신을 징검다리로 만들어 모두 피신 시켰다. 사슴 왕의 등을 밟고 사슴들이 건너 갔기 때문에 사슴왕의 몸은 망가지게 되었다. 그때 한 어린 사슴이 물을 건너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등에 얹고 구해 주었다. 마침내 기력이 다하여 죽기에 이르렀을 때 왕은 다음 생애도 이들을 구원하고자하는 발원을 세웠다. 이런 발언으로 선현과 쿠시나라 사람들을 위해 이곳 쿠시나라로 마지막으로 왔다는 것이다. 붓다는 전생에 사슴 왕이며 선현은 전생에 어린 사슴이며 쿠시나라 사람들은 전생의 사슴들이다.⁴⁰⁾

『열반경』 제본이나 후기의 논사들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붓다가 쿠시나라에서 객사한 것이 아니라 붓다 자신이 이곳을 의도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위대한 붓다가 작은 시골 마을에서 여행 중 초라하게 죽었다고 폄하하여 말하는 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왜소한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의

40)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대정장』24, p.397中).

이목도 끌지 못한 채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는 것은 붓다의 위대한 명성에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보통사람들은 생각하기 쉽다. 따라서 불교도들은 이렇게 왜곡될 수 있는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이 작은 마을에 키타란 의미를 부여하고 붓다가 깊은 뜻을 가지고 이곳을 입멸 장소로 선택했다고 본 것이다.

IV. 붓다의 최후 가르침

1. 붓다가 상체를 보인 이유

한역 『열반경』 중 일부 경전은 붓다가 상체를 드러내고 제자들에게 자세히 관찰하라는 장면이 있다. 『유행경』을 먼저 살펴보자. “世尊은 鬱多羅僧을 펼쳐서 金色의 팔을 보여주었다. 비구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여래가 세상에 때때로 출현하는 것이 優曇鉢花가 때 마취 한번 出現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⁴¹⁾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고 있다. “如來는 大悲心으로 上衣를 벗어 身相을 드러내었다. 모든 비구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지금 佛身을 관하라. 왜냐하면 如來·應恭·正等覺은 烏曇跋羅華처럼 만나기 어렵다. 그때 모든 비구들은 조용히 있었다. 붓다는 法은 모두 이와 같이 諸行無常이다. 이것이 나의 최후 가르침이다.”⁴²⁾

유부의 논사들은 이상의 경전과 약간 다르게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논의하고 있다. “그때 世尊은 상체 부분을 벗고 비구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마땅히 나를 觀해야 한다. 너희들은 마땅히 나를 察해야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냐하면 如來, 應恭, 正等覺은 出現하기도 어렵고 親見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漚曇跋羅華보다 더 어렵다.”⁴³⁾ 논사들은 먼저 왜 붓다가 상체를 보였는가를 논의하고 있다. 두 가지 이유가 먼저 주어지고 있다. 첫째 제자들에게 붓다의 몸을 친견하는 공덕을 짓도록 해주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奢摩他를 12년 간 수행하

41) 『유행경』(『대정장』1, p.26中), “世尊披鬱多羅僧。出金色臂。告諸比丘。汝等當觀如來時時出世。如優曇鉢花時一現耳。”

42)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대정장』24, p.399上), “如來大悲愍故。遂去上衣現其身相。告諸苾芻汝等今者可觀佛身。汝等今者可觀佛身。何以故。如來應正等覺。難可逢遇。如烏曇跋羅華。時諸苾芻咸皆默然。佛言。法皆如是諸行無常。是我最後之所教誨。”

43) 『阿毘達磨大毘婆沙論』(『대정장』27, p.957下), “爾時世尊袒上身分告苾芻衆曰。汝應觀我汝應察我。所以者何。如來應正等覺。難可出現。難可得見。過漚曇跋羅華。”

여 얻은 공덕도 잠깐 동안이나마 붓다의 몸을 보아 생긴 공덕보다 못하다는 것이다. 둘째 무상을 깨닫고 무상하지 아니한 법을 추구하라고 격려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붓다가 3無數劫 동안 쌓았던 복의 더미가 잿더미가 되기 전에 그것을 보고 견고한 법을 추구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붓다의 육신은 32상 80종호의 덕을 갖추고 있지만 이러한 것도 결국 한 줌의 재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고 무상을 벗어난 것을 추구하라는 것이다. 이른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몸을 가지고 무상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논사들은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경전에는 可觀이나 當觀이라는 말로 되어 있고 應察이라는 용어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논사들은 觀과 察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⁴⁴⁾

- ① 觀이란 眼識으로 보는 것을 말하고 察이란 意識으로 살핀다.
- ② 觀이란 無分別心으로 察이란 分別心으로 보는 것이다.
- ③ 觀이란 現在를 살피는 것이고 察이란 未來를 살피는 것이다.
- ④ 觀이란 生身을 살피는 것이고 察이란 法身을 헤아린다.
- ⑤ 觀이란 所集을 보는 것이고 察이란 所證을 헤아리는 것이다.
- ⑥ 觀이란 所厭을 보는 것이고 察이란 所欣을 헤아리는 것이다.
- ⑦ 觀이란 相好을 보는 것이고 察이란 功德을 헤아리는 것이다.

觀이란 눈이라는 감각기관을 의미하므로 붓다를 관한다는 것은 눈에 의해 파악되는 붓다의 色身을 의미한다. 반면에 察이란 미루어 헤아리는 것으로 붓다를 찰한다는 것은 눈에 의해 파악되지 않는 붓다의 法身을 의미한다. 색신의 무상함을 관하면서 동시에 법신의 상주를 察하라는 것이다. 색신에만 집착하면 허무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시에 법신을 찰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전에 비해 논사들이 察을 더 부가한 의도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무상한 붓다의 색신만 이야기하면 斷見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붓다의 법신을 말하기 위해 察이라는 용어를 굳이 부가한 것이다.

2. 붓다의 최후 가르침

팔리어본 『열반경』에 의하면 붓다는 제자들로부터 불법에 의심이 없다라는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은 최후의 가르침을 남긴다. “비구들이여! 이제 나는 너희들에

44) 『阿毘達磨大毘婆沙論』(『대정장』27, p.958上).

게 말한다. 諸行은 소멸되기 마련이다. 방일하지 않고(appamādena) 정진하라.”⁴⁵⁾ 무상한 세계에서 벗어나도록 정진하라는 가르침은 붓다의 유언으로 제자들에게 남겨졌을 법한 내용이다. 불방일의 원어는 appamāda인데 부정접두사 a와 pamāda로 이루어진 말이다. pamāda는 어떤 자극에 의해 정신이 마비된 것을 가리키는 말로 특히 만취한 상태를 가리킨다. 따라서 appamāda는 마음이 깨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단순히 무엇인가를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이(diligent) 아니라 마음이 또렷이 覺醒한 상태(vigilance)이다.⁴⁶⁾ 불방일의 가르침은 결국 붓다(깨어 있는 자, 覺者)라는 말과 상통하는 것이다. 붓다는 최후의 유교로 불방일을 남겼다는 것은 붓다 자신도 최후 순간까지 “깨어있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般泥洹經』에선 다음과 같이 붓다의 최후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다. “너희들 比丘들은 붓다의 儀容을 觀하라. 다시 보기 어렵다. 지금부터 一億四千餘年 후에야 彌勒佛이 나올 뿐이다. 항상 만나기는 어렵다. 天下의 滄桑은 꽃피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 만약 꽃을 피우면 곧 세상에 붓다가 출현할 것이다. 붓다는 세상의 태양으로 항상 중생의 무지를 제거하는 것을 염려한다. 나는 聖師로서 나이 79세에 이르렀다. 해야 할 바는 이미 모두 펼쳐 보였다. 너희들은 그것을 힘써라. 밤이 이미 반을 지났다.”⁴⁷⁾ 이 경전에선 붓다의 출현의 어려움과 붓다의 친견이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가를 강조하고 있다.

『佛般泥洹經』은 아주 간략하게 붓다의 최후 말씀을 전하고 있다. “佛은 比丘들에게 말했다. 밤이 이미 밤이 지났으므로 다시 소리 내지 말라.”⁴⁸⁾ 이 짤막한 말 이전에 제자들은 붓다나 붓다의 가르침에 조금의 의혹도 없다라고 하는 신앙고백이 나타나 있다. 이 경전은 다른 경전과 달리 붓다의 최후 말씀에 관하여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제자들을 두고 떠나는 스승이 제자들을 위해 특별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최후로 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45) DN ii, p.156, “Vayadhammā samkhārā, appamādena sampādethāti.”

46) Nyānatiloka, *Buddhist Dictionary: Manual of Buddhist Terms and Doctrines*. Kandy. 1980.

47) 『般泥洹經』(『대정장』1, p.188中), “汝諸比丘。觀佛儀容。難復得睹。卻後一億四千餘歲。乃當復有彌勒佛耳。難常遇也。天下有滄桑。不華而實。若其生華。則世有佛。佛爲世間日。恒憂除衆冥。自我爲聖師。年至七十九。所應作者。亦已究暢。汝其勉之。夜已半矣。”

48) 『불반니원경』(『대정장』1, p.172下), “佛告比丘。夜已且半。勿復有聲。”

『대반열반경』엔 다른 경전과 달리 다소 감동적인 장면이 추가되어 있다. 제자들로부터 불법에 관해 어떠한 의혹도 없다는 말을 듣고 나서 최후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너희들이 만약 내가 身·口·意로 잘못된 것을 보았다면 너희들은 나에게 말해야 한다.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붓다의 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다. ‘如來가 어찌 身·口·意로 아주 작은 잘못이라도 지었겠습니까?’라고 대답했다. 이에 如來는 곧 偈를 설했다.

諸行은 無常하다. 이는 生滅하기 마련이다.
 生滅이 사라진 것, 寂滅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때 如來는 이 계승을 설하고 모든 比丘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一切의 만들어진 것은 모두 無常하다. 지금 비록 金剛과 같은 나의 몸도 또한 무상하여 변화할 수밖에 없다. 生死 중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다. 너희들은 응당 勤行하고 精進하라. 빨리 生死의 불구덩이에서 벗어나도록 하라. 이것이 나의 最後의 가르침이다. 나는 般涅槃할 것이다. 그때가 이미 이르렀다.’⁴⁹⁾ 다른 어떤 경전보다 이 경전은 붓다의 최후 순간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서두 부분에서 붓다는 자신이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것이 있는가를 제자들에게 묻고 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붓다의 겸손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마지막 순간까지 붓다는 깨어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잘못도 무의식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붓다라는 말 자체가 “깨어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붓다는 최후까지 無明에 의해 미혹되는 바가 없었다는 것이다.

『유행경』에선 世尊은 金色의 팔을 보여주고 여래의 출현의 어려움을 말한 뒤 불방일을 가르치고 있다. “비구들이여! 放逸하지 마라. 나는 不放逸으로써 스스로 正覺에 이르렀다. 無量의 衆善도 또한 不放逸로 얻어진 것이다. 일체 만물은 無常한 존재이다. 이것이 如來가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바이다.”⁵⁰⁾

49) 『대반열반경』(『대정장』1, p.204下), “汝等若見我身口意脫相犯觸。汝當語我。時諸比丘聞佛此語。流淚懊惱而白佛言。如來豈當有身口意微細過耶。於是如來即便說偈
 諸行無常 是生滅法
 生滅滅已 寂滅爲樂
 爾時如來。說此偈已。告諸比丘。汝等當知。一切諸行。皆悉無常。我今雖是金剛之體。亦復不免無常所遷。生死之中極爲可畏。汝等宜應勤行精進。速求離此生死火坑。此則是我最後教也。我般涅槃。其時已至。

50) 『유행경』(『대정장』1, p.26中), “比丘。無爲放逸。我以不放逸故。自致正覺。無量衆善。亦由不放逸得。一切萬物無常存者。此是如來末後所說”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도 『유행경』과 마찬가지로 상체를 보여주고 여래 출현의 소중함을 말한다. 그러나 단지 무상법만 말하고 불방일은 생략되고 있다. “붓다는 法은 모두 이와 같이 諸行無常이다. 이것이 나의 최후 가르침이다.”⁵¹⁾ 비록 불방일의 가르침이 언표되고 있지 않지만 무상법의 가르침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무상법만을 말한 것이라면 그것은 허무주의나 체념적인 생활로 이어질 것이다.

『열반경』 제본은 붓다의 마지막 말씀을 동일하게 전하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 불방일을 붓다의 최후 유훈으로 말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열반경』 제본에 담겨있는 붓다의 최후 가르침은 무상에 대한 철저한 자각과 거기서 벗어난 세계에의 추구의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붓다는 생멸에 종속되어 있는 무상한 법에서 벗어나 생멸을 초월한 세계를 추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무상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불방일이 제시되고 있다. 단순히 부지런히 노력한다는 것이 아니라 4년 처 수행법을 의미한다고 보인다. 순간 순간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방심하지 않고 관찰한다는 것이다.

논서는 붓다의 최후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다. “너희들 비구들은 裁默하고 諸行이 소멸되는 것이라라고 관찰하라.”⁵²⁾ 붓다가 최후로 이런 가르침을 설한 이유를 제자들의 슬픔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비구들이 붓다가 장차 입멸하므로 그 슬픔이 극심하였다. 그래서 붓다는 그 비애를 멈추게 하여 제행무상을 관하도록 한 것이다. 이어 논서는 붓다의 최후 가르침의 내용을 몇 가지 방식으로 분석하고 있다. 첫째, “裁默이란 正念을 유지하라는 것이다. 諸行이 소멸되는 것이라라고 응당 관찰하라는 것은 正知를 일으키라는 것이다.”⁵³⁾ 둘째, “裁默이란 奢摩他(samatha)를 수행하라는 것이고 諸行을 觀한다는 것은 毘鉢舍那(vipassanā)를 수행하라는 것이다.”⁵⁴⁾ 셋째, 裁默이란 憂悲를 멈추게 하는 것이고 諸行을 관한다는 것은 觀行을 일으키라는 것이다.⁵⁵⁾

넷째 妙音 尊者の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裁默이란 다른 사람의 悲哀를 멈추게

51)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 (『대정장』24, p.399上), “法皆如是諸行無常。是我最後之所教誨。”

52) 『阿毘達磨大毘婆沙論』(『대정장』27, p.958上), “汝等苾芻 且可裁默 應觀諸行 是盡滅法。”

53) 『阿毘達磨大毘婆沙論』(『대정장』27, p.958上), “可裁默者 令住正念 應觀諸行是盡滅法者 令起正知。”

54) 『阿毘達磨大毘婆沙論』(『대정장』27, p.958上), “可裁默者 令修奢摩他 觀諸行者 令修毘鉢舍那。”

55) 『阿毘達磨大毘婆沙論』(『대정장』27, p.958上), “可裁默者 令止憂悲 觀諸行者 令起觀行。”

하기 위함이다. 諸行이 소멸되는 것이라 하고 응당 관찰하라는 것은 자신이 成就한 것은 忘失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⁵⁶⁾ 존자의 설명은 이어진다. 붓다가 정각한지 얼마되지 않을 때 說했다는 계송을 인용하고 있다. “諸行은 無常하여 生滅하기 마련이다. 일어난 것은 멸하기 때문이다. 그 적목을 즐거움으로 삼는다.”⁵⁷⁾ 지금 입멸 순간에 이전의 계송에 의거하여 제행은 소멸하기 마련이나 붓다 자신이 성취한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님(無忘失法)을 설한다는 것이다. 존자의 설명에서 無忘失法은 諸行과 상반되는 것으로 존자가 인용한 계송의 적목에 해당한다. 無忘失法은 열반에 다름 아닌 것이다. 붓다의 육신은 제행이므로 생멸의 법칙에 종속되지만 붓다가 이룩한 열반은 無忘失法으로 생멸의 무상을 초월해 있다는 것이다. 존자의 이해에 따르면 붓다는 최후의 가르침을 통해 무상법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을 초월한 법을 추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V. 결어

붓다의 마지막 순간을 전해주고 있는 『열반경』에 따르면 어떠한 해석도 없이 붓다는 마지막 공양을 먹고 질병에 걸린 채 쿠시나라의 작은 마을에서 입멸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묘시는 자칫하면 붓다의 최후 순간을 쉽게 왜곡시키기 위한 자료로 해석될 수 있다. 붓다가 식중독에 걸려 인사불성 상태로 외진 마을에서 객사했다고 악의적으로 험담할 수 있다. 이런 외도의 악담을 불교인들은 그냥 둘 수는 없는 것이다. 붓다의 최후 행적을 목격한 제자들에게겐 이상과 같은 악담은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붓다의 입멸 상황을 의도적으로 왜곡 해석하는 자들이 나타났을 것이다. 이런 악담에 대응하기 위해선 붓다의 입멸 상황을 바르게 전달할 필요를 불교인들은 느꼈을 것이고 이런 노력의 산물이 부파불교의 논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외도가 행했을 직범한 악담을 반격하여 붓다는 자신의 예지에 의해 자신의 입멸장소를 선택하였고 입멸 순간까지 약간의 흐트러짐 없이 온전히 깨어있었다는

56) 『阿毘達磨大毘婆沙論』(『대정장』27, p.958上), “可裁默者 欲止他悲哀應 觀諸行是盡滅法者 顯自成就無忘失法.”

57) 『阿毘達磨大毘婆沙論』(『대정장』27, p.958上), “諸行無常 有生滅法 以起盡故 彼寂爲樂.” 이 구절은 초기경전 여기저기 자주 등장하고 있다. 무상과 그것으로부터의 초월에서 오는 즐거움을 말하고 있다.

것이다. 붓다의 이런 각성 상태는 붓다의 최후 가르침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무상법을 자각하고 방일하지 말라는 붓다의 가르침은 단순히 제자들을 위해 설한 것이 아니라 한편 붓다의 마지막 순간도 방일하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신이 방일하지 못하면서 제자들에게 방일을 가르칠 수 없는 것이다.

붓다의 최후 행적을 불교인들이 정확하게 개관적으로 기술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미화하고 있는지 지금으로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는 불타관의 연구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붓다의 본질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그 답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열반경』에 보이는 불타관보다 부파불교의 논서에 보이는 불타관이 훨씬 붓다를 초인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열반경』도 단순히 붓다를 인간적인 수준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있었던 사실을 왜곡해가면서 붓다를 미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여튼 붓다가 무기력하게 벽촌에서 객사하였다는 험담을 불교인들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을 본고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 약 호 】

| | |
|-----------|------------------------|
| AN | Angutaranikāya |
| DA | Dīghanikaya-aṭṭhakathā |
| DN | Dīghanikāya |
| Mil | Milindapañha |
| MN | Majjhimanikāya |

* 이상 팔리어 텍스트는 Pali Text Society에서 간행된 것을 이용하였음.